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좀 벌레와 사자같이 (호세아 5:1 - 15)

원로목사 **이종윤**

본문은 이스라엘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곧 제사장, 민중, 그리고 왕족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한 말씀입니다.

1. 하나님 지식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취보면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 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므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스스로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버린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자신의 위치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2.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불신앙의 죄를 범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었겠으나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 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3절).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를 대신하여 불려진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음행하였고 더러워진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고멜에게 하시는 말로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 음행하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대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가져온 양떼와 소떼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죄가 가득한 것을 이미 보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롬3:10-11).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3. 거짓 된 종교성

일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고, 이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과 진

정한 교제를 하는지 혹은 교회에 몸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진실로 회개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대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돕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방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13절).

4. 자신에 대한 지식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설한 요한 칼빈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 면전에서(코람데오)"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4절).

사람은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불신앙에 차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경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교만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5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11절).

사람을 숭배하고 높이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며 유다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12절).

하나님은 왕으로, 목자로, 남편으로 우리에게 계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벌레로 나타나셨습니다. 좀벌레는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잘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파괴시켜서 옷을 찢고 부패케 하는 벌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천천히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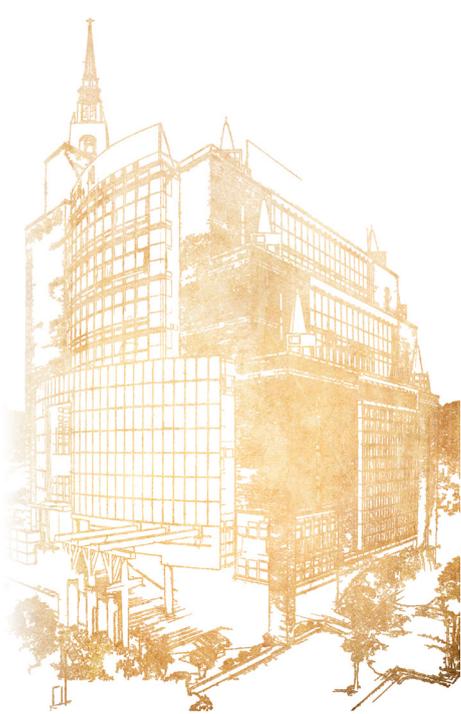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잡자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14절).

"그들이 그 죄를 뒤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15절).

하나님이 좀 벌레와 같이 사자 같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죄를 피하려고 애써도 피할 길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 그리스도의 피뎀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할 터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타지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멸망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 위원장



다시 거룩한 교회로



노문환 장로
(당회서기)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성도들이 힘들어 하는데 무슨 글을 써야하지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을 하다가 도달한 결론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호소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이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금년도 우리 총회의 표어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어서 우리교회의 형편에서 더욱 적절한 표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동안 양적인 성장과 부흥을 하면서 교회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세속화 되고 물질 우선에 빠지기도 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세상과는 달라야 할까요? 세상은 현세적이지만 교회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세적인 신앙인들의 모임이기에 현실 이상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법과 질서의 규제 아래 살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회에서는 동기와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올바른 동기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기도 하여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잃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바른 회복을 위하여!



서문석 장로
(기획위원장)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기원하고 소원하면서 또 하나님의 향해를 출발하기 위해 새해를 맞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침반은 오직 우리 주님 한분이시니 주님께서 우리 배의 키를 잡으시고 험한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한해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곤 합니다. 지금의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조만간 안정이 되고 바른 회복이 되어 우리 본연의 자세로 우리교회가 처음 시작할 그 초심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검토하도록 금년 한해 기획위원회에서는 적극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안일함에 안주해 있었고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조이고 교회를 새로 세운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여야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야 하리라 봅니다. 건축을 할 때 새로 짓기 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아름다운 결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교회의 롤 모델 이었고, 개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였기에 많은 교역자,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바른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위로받고 소망 얻는 예배로



최광성 장로
(예배위원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 또 하나님은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준비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준비하는 예배위원의 마음가짐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주님 대하듯 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전체 분위기와 질서를 주도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러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예배위원 모두는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서울 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며 찬양을



임상현 장로
(찬양위원장)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교회 안에는 안타까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지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존재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있다는 강한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은 내 마음이 편할 때만 하는 것도,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된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언제나, 그리고 마땅히 드러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주일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오지만 진정 우리가 마땅히 드러야 할 아름다운 찬양을 최선을 다하여 울려 드리는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서울교회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저희 찬양위원회 소속 섬김위원들은 신실하신 그분 한분만 바라보며 더 큰 각오와

헌신의 다짐으로 새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교회학교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찬양대원들이 부서장의 행정적 리더십과 지휘자의 탁월한 음악적 지도력을 잘 접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데 열정을 다 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갈급한 온 성도들에게 영적감동을 끼치는 거룩한 찬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당에게 듣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이계홍 장로
(교육위원장)

서울교회 성도면 누구나 아는 대로 서울교회의 3대 목표는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입니다. 이에 교육국은 올 한 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국시민이 되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지식을

배워야 하고, 배우되 바른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의 다음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제자는 세대를 이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장년과 노년은 끊임없이 하나님 지식을 배우고 실천할 때 하나

님만을 소망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역자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 훈련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락방 모임을



양춘경 장로
(교구위원장)

교구위원회는 우리 서울교회 식구들은 누구나 다 소속된 기관입니다.

25년이 된 우리 서울교회 교구위원회의 다락방 모임은 성숙 단계에 돌입하여 최상의 활동을 할 단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나 그러 하듯이 뒤돌아보아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더 없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교구활동

을 정립해야 하는 해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소속다락방부터 하나 되는데 우리는 나부터 먼저 마음문을 여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이해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다소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말과 같이 쉽지는 아니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이므로 성경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금년 한해는 주어진 여건 아래 우리 서로가 기

도로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잘 섬기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한해입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 갈 때 우리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멘으로 순응하는 우리 서울교회 교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오지열 장로
(전도위원장)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한 없이 부족한 제가 지금의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전도위원회의 목직한 위치를 생각하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며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아 할 수 있는 최선을 해 보고자 결심해 봅니다. 잘 아시고 계시듯이 전도위원회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고 잠정 중단 된 70인 전도대의 막중한 사명도 감수해야 합니다.

교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그리고 70인 전도대의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모임을 당분간 정지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안정되어 모든 모임이 활성화되고 본격적인 전도의 사명을 수행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금년 2017년도는 교회의 회복과 안정에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 할 때라 여겨집니다. 특히 전도위원회는 그 회원이 모든 교우들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에 직임을 받은 남선교회, 여

전도회 그리고 70인 전도대의 임직원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지회의 회원들의 선출에 의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욱 성도들의 그 믿음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도위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 갈 수 없으니 부디 끊임 없는 협조와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인선 장로
(재정위원장)

공동의회를 통하여 2017년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비밀번호와 통장을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지금까지 서울교회의 모든 재정은 현재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지불하지 못하여 가스가 중단될 위기에 이르렀으며, 목사, 전도사, 모든 교역 직원들의 사례비도 지불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

님의 몸되신 서울교회가 결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길지 않은 26년간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가페타운을 건립하여 지체장애우들의 배움의 장인 호산나대학을 세운 것은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땀과 헌신과 눈물의 결과였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가 이제 막 빛을 갠고 또 다른 꿈을 위하여 나아가려 할 때 천천벽력과 같은 일을 맞았으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함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올 한 해도 결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산에 지나도록 일하하므로 올 연말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결산보고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도 교회와 당회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감사만 드리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인등록관리 철저하게

수평이동 교인 이명증서 받기로

새가족은 등록 후 1년간 공동의회 회원권 부여하지 않는다

교회는 앞으로 수평이동 교인을 대상으로 이명증서를 받기로 하였다. 이명증서란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 다니던 당회에서 직분과 이명 이유 등을 적어 발급하는 문서다.

신천지등 이단이 신분을 숨기고 교회에 침투하

는 요즘 세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정하였다.

또한 새가족은 교회등록 후 1년 간은 공동의회 회원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 seoulch@hanmail.net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호산나 대학 졸업 · 입학식

졸업식 : 2월15일(수) 13시

입학식 : 3월3일(금) 오전 10시 30분

호산나대학은 우리교회의 창립 이래 한결같이 품어 온 교회목표와 비전이 영근 가시적 열매 가운데 하나다. 교회는 3대 교회목표 가운데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이루기 위해 쉽없이 기도해왔었다.

이처럼 호산나대학은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맞보게 하고, 사회인으로서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존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발전

적 형태의 장애인 교육기관을 지향하며 설립하였다. 이제 호산나대학이 개교1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될것이다.

2017년 호산나대학 졸업식이 2월15일(수) 13시에, 입학식이 3월3일(금) 오전 10시 30분에 본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호산나대학 취업생들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이어져



양재원 군 (호산나대학)

2017년 호산나대학 졸업 예정자 중 취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첫 월급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대학에 기부하는 기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자신의 첫 월급을 기부한 양재원 군은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2016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원 현장 실습을 한 후 올해 1월 2일부터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동명노인요양원에 취업해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양재원 군은 “선배님들께서 취업하고 나서 첫 월급을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기쁘게 기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님들과 같이 요양원에 장기근속 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호산나대학은 취업생들이 첫 월급을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하고 취업생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한편, 올해 졸업예정인 호산나대학생들은 범국민인 울촌, KTis, LGcns, 스타벅스, CGV, 서초참요양병원, 은천요양병원, 순천향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했고 70%가까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며 취업에 힘써준 호산나대학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3일(월) 백양회 모임, 15일(수) 신성종목사 망구연(望九宴) 축사, 16일(목) 한국장로교총회장립100주년기념 표준주석편찬위 위원회를 소집, 18일(토) 종교개혁500주년 공동학술대회 준비모임을 갖는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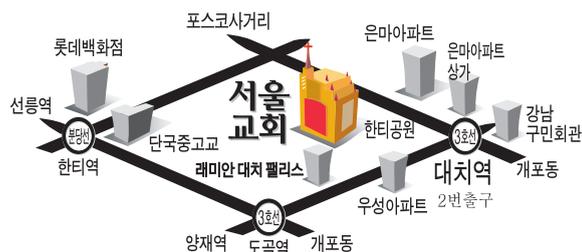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2.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3.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바르게 실현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